

1與多野 구도...광주 서구를 최대격전지

■ 9~10일 후보 등록...4곳 재보선 본격 레이스

여야, 중앙당 차원 집중지원 당심·지지층 결집 사활

오는 9~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강화를 등 4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 전초전의 성격이 강하다. 총선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지역이 3곳이나 포함돼 정당간, 후보간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후보 등록 이후 다음주 16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이번 주 한 주동안 당 지도부의 현장방문 등의 지원을 통해 표심을 파고 들며 선거초반 기선 잡기를 위해 불꽃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에서 각각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국민모임의 정동영후보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출마, 일여다야(一與多野) 대결구도를 이루면서 선에 혼선을 불러오면서 4곳 모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초반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과 중앙당 차원의 지원 여부가 이번 재보선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25~35% 정도로 낮은 점을 감안할 경우, 각 후보들 모두 지지층 결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와 직접 투표를 해야 득표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각 후보들은 우호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집중 지원에 나서는 등 선거 막판까지 당심(黨心)과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 서구를 이영현·김을중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의원들을 대거 광주로 내려 보내 정승 후보 지원을 벌였다.

이들은 정승 후보와 동행해 민생투어를 펼치며 당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주에 주승용 최고위원을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이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당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여야의 집중적인 지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유권자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천 후보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에 수 차례 총출동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출마 '타'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했던

광주정치가 판을 흔드는 강력한 외부적 충격을 준 역할을 한 것이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도 지난 2일 광주에서 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 공개방송을 열고 세월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3주 이상 남아 있어 앞으로 선거판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입법활동, 야권의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책선거 다짐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들이 5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야외무대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윤근 "남해고속도로 광양구간 바닥재 교체"

"차량소음 주민 피해 심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광양) 원내대표는 5일 남해고속도로(순천방향, 13.15km~13.65km) 광양구간의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이 도로 바닥재를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광양 마로초등학교 및 남해오네트 입주민들이 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었지만, 도로공사 측은 지난 1972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주택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용 저소음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대안을 찾아 도로공사 측과 협의

한 끝에 오는 9월 공사에 착공하게 됐다.

또한 해당구간에 오는 5월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토록 경찰과 협의해 과속으로 인한 소음 발생도 줄일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자원개발 확정된 손실 3조4000억

감사원 공기업 3사 감사, 투자액 회수 불투명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미 확정손실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지난 3일 밝혔다.

더욱이 이들 공기업들은 계약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34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정부 당시 3조3000억원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000억원, 가스

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27조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도 벌써 3조40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경우 10개 사업에서 2조6841억원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 가스공사는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더욱이 이들 기업은 충분한 자금 없이 차입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올해 만기도래 차입금만 해도 가스공사는 2조8924억원, 광물자원공사는 1조3808억원, 석유공사는 1조4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는 이라크의 아카스 가스전에 그동안 3538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2조9249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점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연금개혁 '운명의 한달'...얼마나 깎고 어떻게 나눌까

지급률 최대쟁점...여야 입장차 커 합의까지 진통 예상

내일부터 4월 국회...세월호 등 주도권 다툼 치열할 듯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인양문제,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정기국회만큼이나 수두룩해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국회 대표연설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우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6일) 처리를 목표로 5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거쳐 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마친 뒤 6일부터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쉽사리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대 쟁점은 지급률=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은 연금 지급률(현행 1.9%)로 모아진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매월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연금액은 재직기간과 평균소득, 지급률을 각각 곱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급률을 내리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새누리당이 신규자는 1.0%, 재직자는 1.25%로 낮추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7%를 염두에 둔 상태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저축계정'을 엮는 절충안을 내놨고, 순천향대학교 김용

하 교수는 지급률 1.65%를 제안했다.

평균소득 300만원에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금액은 171만원, 새누리당안은 90만~113만원, 김태일 안은 여기에 '+a', 김용하 안은 149만원, 새정치연합안은 153만원이다.

◇소득재분배도 주목=지급률이 정해지면 남은 쟁점은 연금 재원을 얼마나 더 걷을지, 그리고 더 걷은 재원을 어떻게 나눠줄지 여부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지는 새누리당안은 연금 재원을 정하는 기여율(현행 7%)도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는 대신 재직자는 10%로 높인다.

새정치연합도 기여율 인상에는 찬성이 다. 이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9%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모임, 첫 집행위원회...주요 당직 인선

사무총장 양기환·사무부총장 조진형·대변인 김성호 등

진보개혁 노선을 표방하며 9월 이전 창당을 선언한 '국민모임'은 5일 김세균 상임공동대표 주재로 첫 집행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 양기환 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를 인선했다.

국민모임은 또 사무부총장으로 조진형 전 광주민예총 사무처장을, 대변인으로 김성호 전 의원과 오민에 서울 동작구 연극협회장을 임명했으며, 순호철 서강대 교수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았다.

국민모임은 이날 집행위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의 국민모임 후보로 공식 추천함과 동시에 4·29

재보선에서 진보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모임 내부의 일로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에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후 노동당의 입장을 고려해 단일화를 추진하고 진보세력 대통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 의원은 정외대,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등과 이번 재보선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 전 의원의 출마여부와 맞물려 국민모임이 후보 선출이 늦어지자 노동당은 이에 형의한

모임 후보로 공식 추천함과 동시에 4·29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